

# 마크롱·솔츠, 푸틴에 우크라이와 협상·휴전 압박

“젤렌스키와 직접 진지한 휴전 협상에 나서라”  
아조우스탈 제철소 포로 2500명 석방 요구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는 28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와 휴전 협상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BBC는 이날 독일 총리실 관계자를 인용해 솔츠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80분 동안 전화회담을 하면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직접적이고 진지한 협상”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고 보도했다.

독일 정부 소식통은 두 서방 지도자가 푸틴 대통령에게 “즉각 전쟁을 중단하고 러시아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대화 재개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크렘린궁은 밝혔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직접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렘린궁에서 언급한 바가 없다고 BBC는 전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협상을 “간절히 바라는” 편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협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협상단은 제3국에서 대면 협상을 수차례 진행했으나 아직까지 별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과 솔츠 총리는 전화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포로로 잡힌 우크라이나 병사 2500명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의 남부 항구도시이자 전략적 요충지인 마리우폴은 지난 80일간 러시아의 집중 공격으로 거의 폐허가 됐다. 27일에는 러시아에 점령된 건물 잔해에서 약 70구의 시신이 발견됐고, 24일에는 마리우폴 시내의 무너진 아파트 잔해에서 부패한 시신 200여구가 발견되기도 했다.

마리우폴 시 관계자는 이들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 포로 900명 이상이 러시아 점령지 도네스크의 한 마을에 있는 감옥으로 이송됐으며 또한 부상병 일부는 도네스크 지역의 다른 마을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를 만나 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금융지원과 군사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과의 포로 교환을 통해 이들이 석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측은 이와 관련해 확실한 답을 주지 않은 상태.

BBC는 일부 러시아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포로들이 재판을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처형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솔츠 총리는 이밖에도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오데사항을 막은 봉쇄를 풀어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을 허용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현재 러시아군의 봉쇄로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길이 막혀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크렘린궁은 이와 관련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면 글로벌 식량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는 푸틴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러시아는 또한 프랑스와 독일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는 불안정한 정세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BBC는 전했다.

## 글로벌 클래스



AS로마 팬들이 조세 무리뉴 감독을 황제로 묘사한 벽화 모습. 데일리메일 캡처

## 로마 황제 된 무리뉴 감독 AS로마 17년 만의 첫 우승

AS로마 팀을 우승으로 이끈 조세 무리뉴 감독에게 팬들의 찬사가 쏟아졌다.

27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AS로마 팬들은 황제 모습을 한 무리뉴 감독을 벽화에 새겨 우승의 감격과 감사를 표했다.

AS로마는 26일 알바니아에서 열린 ‘2021-2022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컨퍼런스리그’ 결승전에서 페예노르트를 1대0으로 꺾어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무리뉴 감독은 AS로마에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대항전 우승 트로피를 안겼다. 무리뉴는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 유로파 컨퍼런스리그를 모두 제패한 최초의 감독이 됐다.

로마 팀은 우승 후 수천 명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시내 퍼레이드를 가졌다.

현지 팬들은 무리뉴 감독을 황제로 묘사해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데일리메일은 로마에서 황제의 모습으로 벽화에 새겨진 무리뉴 감독이 “불멸의 존재”가 됐다고 설명했다.

박선욱 기자 sobahk@skyedaily.com

# “유엔총회, 내달 ‘대북 추가제재 무산’ 중·리비토 논의”

압둘라 사히드 유엔총회 의장, 서한으로 공식

유엔총회가 내달 미국이 주도한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무산과 관련해 총회를 열고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를 논의하리라는 보도가 나왔다.

스푸트니크통신은 27일(현지시간) 유엔총회가 6월8일 러시아와 중국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비토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압둘라 사히드 유엔총회 의장이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돌렸다고 한다.

앞서 안보리는 전날인 26일 거수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 신규 결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에서는 안보리 소속

15개 이사국 중 13개 국가가 신규 결의안 도입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며 결국 신규 결의안 채택은 무산됐다. 현행 규정상 새로운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모두 동의하고, 총 15개 이사국 중 9개 국가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앞서 유엔총회는 지난달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이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관련 설명을 듣도록 총회 자동개최를 규정하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상임이사국의 비

토로 안보리 작동이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비토권 행사에 부담감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전날 추가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자 “이사회는 (불법 무기) 확산자들이 그들 행동의 결과에 직면하지 않도록 방어하기를 택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장쑤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무언가에 찬성, 또는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일은 이사회 회원국으로서 중국의 권리”라고 반박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 역시 “북한을 향한 제재 강화는 쓸모없다”라고 맞섰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19일 유엔 안보리 식량 관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

#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3D 정밀측량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재확인해왔습니다.

영토주권 강화, LX공사가 함께합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 www.lx.or.kr